

아버지의 마음

제 가슴속에는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이 어머니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한 시간이 어머니와는 13년, 아버지와는 42년인데 부친에 대한 그리움이 덜하여 때때로 미안한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언젠가 서울역 앞을 지날 때 불현듯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상경하실 때마다 서울역 앞 브라운 색 빌딩을 자랑스레 바라보시곤 하셨습니다. 촌놈의 막내아들이 그 빌딩에 근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에 돌아 가시면 아들이 빌딩의 주인인 것처럼 자랑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13년 전 그 아들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소풍을 마치고셨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다음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략...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폭탄을 만드는 사람도/감옥을 지키는 사람도/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출처_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성경에서는 아버지로서 참으로 곤란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 아브라함... 번제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뚜벅 뚜벅 마지막 순간을 향해 길을 가는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번제할 제물을 묻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의 마음의 한계로서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 성경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에 관해 묻는 장면을 만날 때 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놓치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 22:7)

< 김낙균 안수집사_ nkkim2k@hanmail.net >

교회소식 이모저모

청년부 겨울수련회



청년부에서는 2월 2일(목)~4일(토)에 진새골 사랑의 집(경기도 광주 소재)으로 겨울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150

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드림(Do Dream): 나의 두드림, 하나님의 두드림, 이웃의 두드림, 세상의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유해룡 교수님(장신대 영성신학)과 정재상 목사님(청년부)의 강의, 김창호 목사님(소일교회)과 고영 SCG 대표의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나갈지, 크리스천으로서 이웃과 세상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도전 받으며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주로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년1부(20~25세)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2부(26~30세)와 청년3부(30대 싱글) 지체들이 직장을 마치고 수련회에 합류해서, 20대와 30대 청년들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수련회는 끝났지만, 청년들이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수련회를 삶으로 살아내길 기대합니다.

< 이정민 전도사 >

안수집사회 인터넷 전용카페 개설

주님의 교회 안수집사회(회장 박규택 안수집사)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안수집사회 인터넷 전용카페를 개설하고 카페 이름을 "주님의 청지기들" cafe.daum.net/pcl-ansu 로 정하였다. 주님의 교회 안수집사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글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다고 하면서 6명의 운영자가 따끈따끈한 커피와 함께 손님맞을 준비를 끝내었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노대홍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함글함글 정정보도

지난 함글함글 296호 신임 교역자 소개에서 준전임 전도사로 소개되었던 박상현 전도사는 교육전임 전도사로 정정보도합니다.

늘푸른대학 제4기 모집안내

입학 대 상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주님의교회 교인 포함) 안 내 등 록 : 2012. 2.26(주일), 3.4(주일) - 선착순 150명 등록금 : 3만원 (1년 30주간) ※ 입학원서 제출 시, 특별활동반 2개를 지망해 주세요	학 사 ▶ 1학기 : 3.6 ~ 6.26(화) - (17 주간) 일 정 ▶ 2학기 : 9.4 ~ 12.4 (화) - (13 주간) 개강 : 2012. 3.6 (화) 오전 10:30
---	--

특별활동반 (11개 반)

성경읽기반 | 찬양대반 | 붓글씨반 | 탁구반 | 생활체육반 | 스포츠댄스반 | 노래교실반 | 종이접기반 | 한국무용반 | 비독반 | 뜨개질반

*문의: 교무처장 / 정원영 안수집사 010-5339-6464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福音(복음)의 通路(통로)

「함글함글」을 정의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문서선교를 위하여 발행하는 교회신문이다. 즉 문서에 의한 「복음의 통로」인 것이다.

福音(복음) 通路(통로)의 문자적 의미

★福(복 복): “제사장 또는 神(신)”을 의미하는 「示(보일 시)」와 「畐(가득 찰 복)」이 결합 되었으므로 「신께서 원하는 것을 가득 채워 주시니 복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畐(가득 찰 복): “모이다의 뜻이 있는 一(한 일)”과 “물건, 재물”을 상징하는 口(입 구)와 “화려함, 아름다움”의 뜻이 있는 田(밭 전)의 결합문자이므로 「모인 재

물이 아름답게 쌓여 있으니 창고에 가득 찼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音(소리 음): “날카로움, 분명함”의 뜻을 지닌 辛(찌를 건)과 “말하다”의 뜻을 지닌 田(가로 월)의 결합체로써 「분명한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매체는 소리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通(통할 통): “숫아남”의 뜻이 있는 甬(물 솟을 웅)과 “길, 가다”의 뜻이 있는 辵(쉬엄 쉬엄갈 작. 辵 책받침)이 결합된 문자로써 「물이 솟아나와 흘러가니 사방으로 통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路(길 로): 발모양을 상형화한 足(발 족)과 따로따로를 뜻하는 各(각각 각)을 결합시킨 문자로써 「발걸음을 옮기며 각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시설이 길이다」라는 뜻을 지닌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_ 요 10 : 10

통 권 _ 제 297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2월 19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절기의 회복은 영적인 능력의 회복 이 땅과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의 절기들

발렌타인 데이와 성 발렌티누스

지난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였다. 매년 이날에는 대목을 맞은 상점마다 특별히 포장한 초콜릿 선물 세트와 바구니를 진열하고 젊은이들을 유인하곤 한다. 하지만 이 절기는, 성 발렌티누스에서 유래하지도 않았으며, 기독교의 전통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풍습이다. 종이로 만든 발렌타인 데이가 16세기부터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긴 하지만, 요즘처럼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풍속은 1930년대 일본의 한 제과업체 광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후 1960년대에 일본의 다른 제과 업체가 여성들에게 초콜릿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일본식 발렌타인 데이가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절기에 가려진 기독교의 절기들

이처럼 유래가 불분명한 많은 세속적인 절기들이 한국 사회에 날로 퍼져가고 있다. 1월 14일 다이어리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4월 14일 블랙데이 등으로 이어지는 이 유사절기들이 많은 관련 업체들의 마케팅 활동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함에도, 젊은이들의 맹종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연말 거리를 밝히던 반짝이는 성탄 장식과 정겨운 찬송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모 청량음료 업체의 광고에서 출발했다는 빨간 복장의 산타클로스 풍속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절기는 계절의 표준이 되는 시기, 또는 어떤 문화 집단에서 주기적으로 그 문화의 정체성을 기리기 위해 지키는 축일이나 명절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 점점 만연하는 출처불명의 세속적인 절기들을 유념해 보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기독교 절기 회복은 교회와 세상과 생명을 살리는 길

“기독교의 절기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지난 2월 5일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의 주일 설교이다.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열왕기 하 23:21-23)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요시아 왕은 오랜 우상 숭배를 종결하고 여호와로 향하는 첫 걸음에,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회복했던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절기는 안식일, 사순절, 부활절, 승천절, 성령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 대강절, 성탄절 등이다. 물질의 우상 등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대항하는 영적인 씨름에서 이겨서 세상과 생명을 살리는 길은, 우선 교회 절기의 여러 전통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절기의 회복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올해 부활절에는 드라마 형식의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의 말이다.

< 편집부 >

2012년 주일별 예전 색깔

년월일	교회력	년월일	교회력
2011년도		5.13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 아버지 주일
11.27	대림절 첫 번째 주일	5.20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12.04	대림절 두 번째 주일	5.27	성령 강림 주일
12.11	대림절 세 번째 주일	6.03	삼위일체 주일
12.18	대림절 네 번째 주일	6.10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12.25	성탄절	6.17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2012년도		6.24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1.01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7.01	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일
1.06	주현절	7.08	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1.08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주님의 수세 주일	7.15	오순절 후 일곱 번째 주일
1.15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7.22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
1.22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	7.29	오순절 후 아홉 번째 주일
1.29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	8.05	오순절 후 열 번째 주일
2.05	주현절 후 다섯 번째 주일	8.12	오순절 후 열한 번째 주일/광복절 감사 주일
2.12	주현절 후 여섯 번째 주일	8.19	오순절 후 열두 번째 주일
2.19	주현절 후 일곱 번째 주일/산상 변모 주일	8.26	오순절 후 열세 번째 주일
2.22	창회의 수요일	9.02	오순절 후 열네 번째 주일
2.26	사순절 첫 번째 주일	9.09	오순절 후 열다섯 번째 주일
3.04	사순절 두 번째 주일	9.16	오순절 후 열여섯 번째 주일
3.11	사순절 세 번째 주일	9.23	오순절 후 열일곱 번째 주일
3.18	사순절 네 번째 주일	9.30	오순절 후 열여덟 번째 주일
3.25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10.07	오순절 후 열아홉 번째 주일
4.01	종려 주일/수난 주일	10.14	오순절 후 스무 번째 주일
4.05	성목요일	10.21	오순절 후 스물한 번째 주일
4.06	성금요일	10.28	오순절 후 스물두 번째 주일
4.08	부활 주일	11.04	오순절 후 스물세 번째 주일
4.15	부활절 두 번째 주일	11.11	오순절 후 스물네 번째 주일
4.22	부활절 세 번째 주일	11.18	오순절 후 스물다섯 번째 주일
4.29	부활절 네 번째 주일	11.25	오순절 후 스물여섯 번째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5.06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 어린이 주일		

<자료제공 : 2012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

주간 목회력

<2012 겨자씨인도자수련회>
-2.24(금)~25(토) / 필그림하우스
<2012 전반기 성인 입교세례식>
-신청 : 2.19(주일)~26(주일) / 3주간

<2012 교구별 겨자씨편성표 게시>
-1층 게시판 (문의 : 각교구 목사)
<제4기 늘푸른대학 입학안내>
-등록 : 2.26(주일),3.4(주일) / 1층 로비

<제8기 싱글매칭학교>
-신청 : 4층 교역자실 / 2.27(월)마감
<회계처리 교육>
-2.19(주일) 오후1시 / 소예배실

2012

부활절 특별예배 예배드라마

‘절기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교회에서는 이번 부활절에 드라마 형식의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Q&A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편집부

〈자료제공 : 부활절특별예배위원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_부활절 특별 예배로 기획한 ‘예배드라마’

Q. ‘예배드라마’라는 말이 낯선데요, 무슨 뜻인가요?

A. ‘드라마’가 무엇인지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과 같은 무대 예술을 보통 드라마라고 합니다. 예배드라마는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드라마 자체로 훌륭하고 예술성 있는 공연의 완성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예배드라마의 유래는 어떤 것이지요?

A. 드라마 자체가 제사의식에서 나온 형태의 예술로 신께 인간의 진정성을 표현하고 신을 높이고 경배하는 속에서 신과의 참 만남을 추구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구약 시대의 많은 상징물들과 장식, 제사장의 행위, 의상, 각 사람의 역할, 순서, 낭독 등의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결국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긍휼에서 나온 깊은 사랑에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눅 15:11-32)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처럼,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Q. 교회 연극과 예배드라마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A. 교회연극은 연극적 요소에 충실하지만, 연극이 가장 발달했던 중세시대에도 예배에 드라마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92년경 부활절 예배에 처음으로 세 천사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서 나누는 이야기(마 28:1-10)를 드라마로 만들고, ‘예배드라마’라고 불렀습니다. 중세 교회연극은 그 후 계속 발전을 하면서 스케일이나 이야기, 방법 면에서 놀랄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Q. 올해 부활절에 왜 예배드라마를 하게 되었는지요?

A. 세상의 타락, 사회의 혼란 등은 모두 세상 문화가 교회의 전통을 잃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원호 담임목사도 강조했듯, 교회 절기의 회복은 세상에 교회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의 예배드라마를 통해서,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알리고, 쉽게 기독교의 진리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Q. 이번 예배드라마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제입니다. 전체 이야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친구인 우리를 사랑하사 그 친구(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 파트는 종으신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꿈을 주시는 장면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Q. 예배드라마를 준비하려면 어려움이 많은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A. 성도의 참여입니다. 참여란 어떤 역할을 맡아서 무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객석에서 정서적으로 예배에 깊이 동참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연기자로, 코러스(합창)로, 스텝(의상제작, 무대 제작 등)으로 참여해주셔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드려 예배를 직접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구구별로 역할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역할에 맞는 스킨나 의상을 착용하시고, 찬양도 미리 연습하시면 되며, 예수님의 부활장면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일 예배시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Q. 많은 성도가 참여하는 예배드라마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A.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세대통합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족들이 부활절 특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어린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부모님이 다시 한 번 가르쳐주며 복음에 대한 나눔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기도를 통해 2012년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귀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 46:5)

어느 시대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2012년을 맞이하며 주님의교회는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였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에 뜻을 두고 새벽기도 헌신자들을 모집하여 157명의 자원자가 이 사역에 헌신하였다. 그간 새벽 제단을 지킨 많은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헌신자들은 주 중 새벽기도회 시간을 성실하게 참여하고 사명감으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한다. 15개의 팀으로 구성된 헌신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정기 모임을 통해 말씀을 공급 받고 서로를 격려 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헌신이란 말을 쓰기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헌신이란 말을 쓰기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교회와 가족, 이웃, 내민족, 이 세상을 위해서 믿는 자녀로써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저는 늘 새벽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교회 기도파수꾼 157명

나에 대한 가족에 대한 기도만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민족, 이 세상을 위해서 작은 힘이 되자는 의미로 새벽기도헌신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작은 힘이 교회와 민족과 이 세상에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열심히 새벽기도헌신자로써...”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적당히 베풀고 적당히 기대하는 상식속의 나를 잊고 우리 함께해요. 아무런 방해도 없는 여명의 시간에 살며시 웃으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덥석 잡는 우리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많기를 소망해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예배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동일한 기도 올려 드리며 응답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일상처럼 나타나기를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상처럼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하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강권함으로 시작하였으나 자원함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기도에 헌신한 분들의 소망과 각오들이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정경혜 기자 _ gracekhong@hanmail.net 〉

고등부 교사 수련회

2012년 1월 28일, 양평 더큰나무 펜션에서 고등부 교사 수련회가 열렸다. ‘소원 (So One)’을 주제로 한 이번 수련회에는, 박상현 전도사, 김유석 부장 외에 삼십여 명의 교사와 스태프가 참여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 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오전에는 ‘놀이로 하나 됨’, ‘사명으로 하나 됨’, ‘비전으로 하나 됨’, ‘기도로 하나 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사 운영 방침과 2012년 교육 기획 내용을 공유했으며, 오후에는 그룹별 토론을 통해 좋은 교사란 무엇인지, 부서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에는 분위기가 좋은 카페로 이동하여,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사역이 겹쳐 있는 교사들이 있어 전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2012년 고등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로 함께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정희봉 집사 〉



2012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리더의 사명”

강사: 주 선 애 교수

일시: 2012.2. 24(금)-25(토) / 1박 2일

장소: 필그림 하우스 (☎031-589-7601)

대상: 겨자목섬김이, 겨자채돌봄이, 겨자씨인도자, 권찰